



## 미 증시, FOMC 경계심리에도 테슬라 효과 등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29일(월) 미국 증시는 5월 FOMC를 앞둔 경계심리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아마존, 애플 등 실적 기대감 유입되며 강세(다우 +0.4%, S&P500 +0.3%, 나스닥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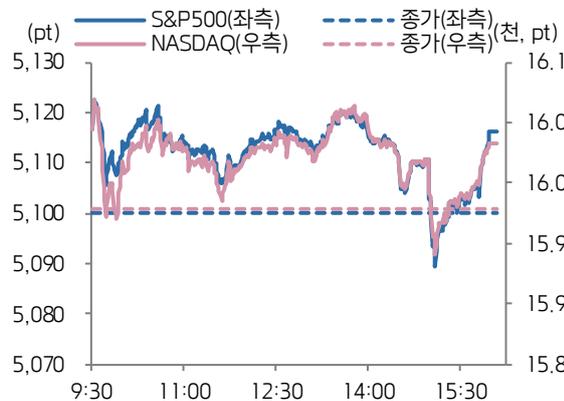
미국의 평화협정 중개로 이란-이스라엘 휴전 가능성 부각되며 유가 하락.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당분간 라파 침공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가자지구를 방문해 휴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

미국 재무부가 올해 2분기(4~6월) 차입금 추정치를 1월 2020억보다 410달러 상향한 2430달러로 조정, 5월 1일 구체적인 3년, 10년, 30년물 국채 발행규모를 밝힐 예정. 전일 국채발행계획(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를 통해 6월말 기준 현금잔액이 7500억달러로 예상. 재무부의 현금 잔액은 25일 기준 약 9080억달러로, 분기 초기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던 1월 29일의 844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음. 하지만 2분기 중후반 들어 다시 감소하면서 차입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

일론 머스크는 중국을 방문하여 리창 국무총리와 완전자율주행(FSD)의 중국 출시를 논의. 지난 28일 중국 내 데이터 안전 검사를 외국자본 기업 최초로 통과. 공공기관·공항·고속도로 등에서 내려진 운행·정차 제한 등이 사라지며, 통과한 76개 항목 중 테슬라가 출시한 모델 3와 모델 Y가 포함. 또한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지도 제작(mapping)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이에 테슬라(15.31%) 주가 급등, 중국 전기차 회사인 리오토(ADR)는 7%, 니오(ADR) 역시 2%대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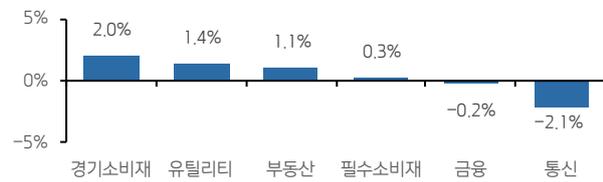
전일 엔·달러 환율은 장중 160.17 엔까지 상승,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160엔대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154.54엔대로 꺾이는 등 급격한 가격 변동성 확대. 닛케이는 "일본이 '쇼와의 날'로 공휴일을 맞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거래 주체 자체가 적었다"며 "통화 당국의 환율 개입 경계감이 커지며 시세가 크게 흔들리기 쉬운 상황이 됐다"고 평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 제기되었으나 당국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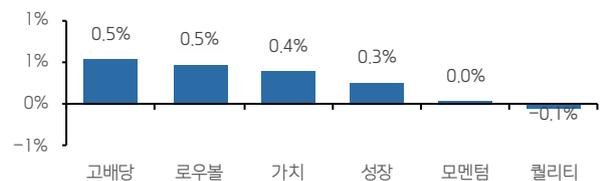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87.44	+1.17%	USD/KRW	1,377.25	+0.14%
코스피 200	364.48	+0.96%	달러 지수	105.64	-0.28%
코스닥	869.72	+1.51%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444.87	+1.59%	USD/CNH	7.24	-0.01%
S&P500	5,116.17	+0.32%	USD/JPY	156.14	-0.13%
NASDAQ	15,983.08	+0.35%	채권시장		
다우	38,386.09	+0.38%	국고채 3년	3.537	+1.9bp
VIX	14.67	-2.4%	국고채 10년	3.690	+0.5bp
러셀 2000	2,016.03	+0.7%	미국 국채 2년	4.977	-1.7bp
필라. 반도체	4,765.79	+0.64%	미국 국채 10년	4.614	-4.9bp
다우 운송	15,213.56	+0.28%	미국 국채 30년	4.732	-4.4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81.09	-0.51%	WTI	82.63	-1.45%
MSCI 전세계 지수	765.58	+0.42%	브렌트유	88.4	-1.23%
MSCI DM 지수	3,347.04	+0.36%	금	2357.7	+0.45%
MSCI EM 지수	1,051.33	+0.94%	은	27.37	+0.44%
MSCI 한국 ETF	64.02	+1.07%	구리	465.9	+2.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9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3.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1일 국내 휴장에 따른 관망심리 유입 가능성 2. 테슬라 주가 급등이 국내 관련주 수급을 추가로 호전시킬지 여부 3.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실적 등 국내 주요기업 1분기 실적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한국이나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주 첫 거래일은 순조롭게 넘겼지만, 주 중반부터 5월 FOMC, 미국 제조업 및 고용, 한국 수출, 기업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 그 중 매크로 상 메인 이벤트인 5월 FOMC는 1~3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및 4월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 수위 상승 등을 고려 시 매파일 것으로 판단.

여기서 4월 이후 코스피(-6.1%, 4월 고점 대비 4월 저점까지 하락률), 코스닥(-8.7%), 나스닥(-7.1%), 닷케이 225(-7.0%) 등 주요국 증시가 월중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한자리수 후반대의 주가 급락을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4월 중 엔비디아 발 AI 산업의 성장 불확실성이 이 같은 주가 급락에 일조한 측면도 있으나,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전망이 기존 3~4회에서 1~2회로 후퇴됨에 따라 달러 강세, 금리 상승 등 부정적인 외부 충격을 주가에 기반영 해왔음을 시사.

현재 시장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주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회복 국면을 넘어 기존의 상승 궤도로 다시 복귀할 지가 여부가 관건이 될 것(29일 종가 기준으로 4월 저점 대비 주가 회복률, 코스피: +4.0%, 코스닥: +4.4%, 나스닥: +4.6%, 닷케이 225: +2.3%). 그 첫번째 관문은 5월 FOMC 로서, 점도표나 경제 전망이 공개되지 않기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첫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 시작 전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데 더 많은 증거를 입수하기 원한다”와 같이 연내 금리인하는 기존 전망대로 유지하면서, 그 시점에 대해 모호함을 남겨놓는 것임. 이 경우 주식시장은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매크로보다는 기업 실적 이벤트 및 경제지표 이벤트에 영향을 받는 장세에 돌입할 전망.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까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더 커질 시에는 금리인상도 고려할 것”이라는 식의 강경한 스탠스로 급변하는 것임. 이는 현시점의 워스트 시나리오로서, 시장금리 추가 상승, 달러화 초 강세 등이 출현하며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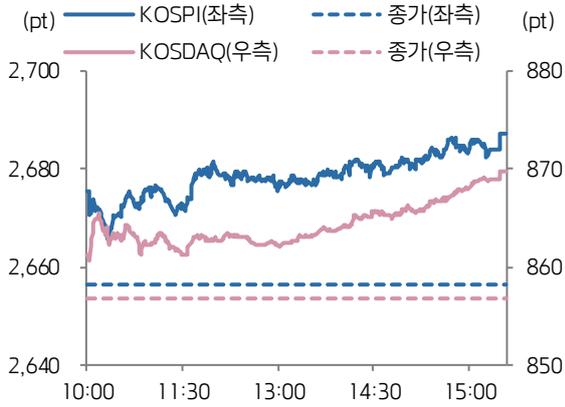
세 번째 시나리오는 “1~3월 인플레이션 상승은 크게 개치지 않으며, 여전히 2% 물가로 향하는 데 강한 확신이 있다”면서 점도표 상 금리 전망치(연내 3회)도 6월에 변경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강화하는 것임. 해당 시나리오는 베스트 시나리오로써, 금리 및 달러화 레벨다운 등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은 3월 FOMC 이후의 흐름과 유사하게 안도밸리를 구가할 수 있을 전망.

5~6월 중 발표되는 4~5월 고용과 물가 지표에 따라 실질적인 본계임인 6월 FOMC 및 이후의 FOMC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 두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따라서,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매파 결과인 첫 번째 시나리오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5월 FOMC에 임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금요일 미 증시 강세 vs 장중 엔화 변동성 확대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됐음에도, 시클리컬, 바이오, 인터넷 등 지난주 반등장에서 소외됐던 업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1.2%, 코스닥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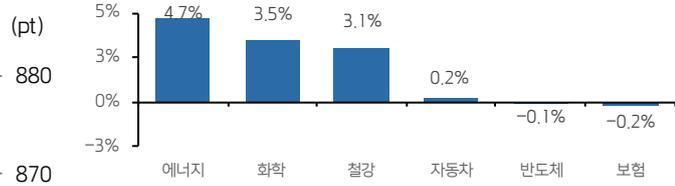
금일에는 자율주행 호재에 따른 테슬라(+15.3%)발 미국 증시 강세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상승 출발 하겠으나, 1일(수) 국내 휴장 기간에 따른 불확실성 및 5월 FOMC 대기심리로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대내적으로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별 실적 등 주요 기업 실적, 대외적으로는 전일 160 엔대를 터치했다 속락했던 엔/달러 환율 변화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